

감귤원 품종갱신 우량묘목 공급 급선무

고품질 감귤 생산 위해 제주도서 추진 올해 150ha 목표
3년생 우량묘목 선호하는데 공급 원활안해 참여 미미
“생산자단체인 농협등이 나서 묘목 키워 공급해야” 지적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해 제주도가 FTA기금 사업으로 감귤품종을 갱신하거나 성목을 이식해 좋은 생육 조건을 만드는 ‘원지정비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정작 농가가 선호하는 우량묘목 공급난으로 우량묘목 공급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품종갱신사업은 노령의 온주감귤 나무를 당도가 높은 만감류로 품종을 전환하고, 성목이식은 관행적으로 밀식재배해온 감귤원을 굴취해 적정간격으로 다시 심고 배수로 정비 등 고당도 감귤생산이 가능한 과원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2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각각 50ha, 100ha의 감귤원에서 원지정비사업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현재 제주시는 118농가에서 36.7ha를 신청했고, 서귀포시가 267농가에서 92.9ha를 신청했다. 올해 사업 목표량 달성을 위해 농협별 배정에 나서면서 농가 신청이 예년보다 대폭 증가했다.

감귤 원지정비사업은 제주시가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2019년까지 51농가·20.1ha에서 추진됐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보다 앞서 품종갱신은 2011년부터, 성목이식은

2015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486농가·163.3ha에서 추진됐다. 이처럼 10년 가까이 사업이 추진됐지만 실적이 미미한 것은 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품종갱신 희망농가가 선호하는 우량묘목과 3년생 대묘가 부족해 민간 종묘사에서 1~2년생의 어린 묘목을 구입해 심으면서 4~5년생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하지만 3년생으로 품종을 갱신할 경우 3년차부터는 수확이 가능해져 농가 선호도가 높다.

현재 도내에서는 제주감귤이 유일하게 모수원(母樹園)을 운영하며 감귤묘목을 공급중인데, 제주도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도내 감귤농가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귤 생산자인 서귀포시는 내년 국비 지원을 받아 위한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해부터 생산자단체인 농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위미·남원 농협에서 종자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해 부지도 확보해놓은 상태다. 두 농협은 오는 9월쯤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 준비중인데, 현재 모수원을 운영중인 감협도 시설 증설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들 생산자단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의 6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받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생산자단체와 협의해 왔는데 주산지농협인 남원과 위미농협에서 부지를 확보해 오는 9월쯤 농식품부에 2021년 종자산업기반구축 지원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사업에 선정되면 생산자단체에서 농가에 우수한 과수묘목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 서귀포시 신양리 어촌종합개발 해수부 사업 선정 2025년까지 51억 투입 다목적센터 등 조성

서귀포시는 2일 해양수산부 ‘2021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한 신양리 어촌 종합개발 사업과 서귀포시 역량강화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어촌 개발 사업으로, 어촌 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원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어촌 경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양리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신양리 다목적센터 조성 ▷신양 포구 기반 시설 및 계류 시설 조성 ▷농수산물 가공유통센터 조성 ▷해양 생태공원 및 캠핑장 조성 ▷마을 내 조형물 및 종합안내관 설치 등 총 사업비 51억원이 투입돼 내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다.

서귀포시 역량강화(성산업) 사업은 ▷농어촌 특화 역량강화 사업 ▷

마을 공동시설 활성화 컨설팅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직 구성 등 총 사업비 1억2000만원이 투입돼 2021년에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서귀포시가 제출한 예비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3단계의 평가를 거쳤으며, 세부 사업 내용은 기본 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법수 신양리 마을 이장은 “사업에 선정돼 기쁘다”며 “이번 사업으로 주민이 행복한 신양리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과 전문가, 주민이 협력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18일부터 단계적 개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잠정 휴관에 들어갔던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이 단계적 개관을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2일 ‘제주형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적 시행’ 연기에 따라 당초 4일 개관하려던 일정을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 지역 목회자 단체 여행객의 제주 방문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조치로, 잠복기를 고려해 개관 일정을 2주 연기한 조치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비트 선별작업 2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수확한 비트를 공판장에 보내기 위해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도내 6개 보건소에 ‘초스피드 워크스루’ 설치

제주지역 6개 보건소에 ‘초스피드 워크스루’가 설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일까지 도내 6개 보건소(제주시보건소, 제주시동부보건소, 제주시서부보건소, 서귀포시보건소,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에 다목적 양방향 검체 채취부스(일명 ‘초스피드 워크스루’)를 각각 1대씩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등교 개학과 동시에 수도권 지역 등에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 수요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 인력의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초스피드 워크스루’는 부스 내에 바이러스 차단 필터(음압, 양압)를 적용해 의료진이 레벨D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보호복 착용 등의 의료진 부담을 덜고, 5

분내 간단한 소독 후 신속한 검체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안전한 진단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양방향 검체 채취 부스는 지난 3월 30일부터 제주국제공항에 설치해 운영 중인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2대를 비롯해 총 8대로 늘었다.

해당 부스에서는 ▷최근 14일 이내 해외방문 이력자 ▷입·출도자 중 37.5℃ 이상 발열자 ▷도내 학생 및 교직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수도권 확진자 동선 관련 업소 방문자 ▷요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등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검체 채취가 이뤄진다.

한편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워크스루 진료소를 통해 총 1738건의 검체 채취가 있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체육보조금 ‘썩뚝’... 국제교류는 “다음에”

도, 체육진흥사업비 4억원 감액... 2억원 배정 국제교류는 전액 삭감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체육 관련 사업 예산도 칼질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국제교류사업은 사실상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2020년 체육진흥사업비 변경 승인 보조금 변경(감액) 결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존 23억9584만원이던 체육진흥사업비 보조금이 19억

5186만원으로 4억4300만원 가량 감액됐다. 이번 감액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일부 사업 축소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2억원이 책정된 국제교류사업 예산이 1억6000만원 줄어든 4000만원으로 변경돼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제주-닝보 스포츠 교류(3000만원) ▷제주-

동남아 스포츠 교류(5000만원) ▷제주-유럽권역 스포츠 교류(5000만원) ▷국제 스포츠 교류확대(1000만원) ▷동경올림픽 연구단 파견(2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제주-하이란 스포츠 교류(4000만원)는 이번 감액 결정에서 살아남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향후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전문체육지도자 운영 14억7090만원→13억7472만원 ▷전문체육활성화 2억6600만원→2억원 ▷스포츠과학센터운영 2억2000만원→1억5000만원 ▷전지훈련 운영 3000만원→603만원으로 예산이 줄었다.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체육과 전도단위대회 등 축소가 불가피한 사업을 대상으로 감액이 이뤄졌다”며 “5월에서 9월로 연기된 제주도민체육대회도 개최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감액되는 사업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진정한 제주인의 보약

칼슘비료+코코리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페르카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칼슘비료

높은 저장성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추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리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옥스바실러스

미생물 실험체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NAVER D2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감귤 · 만감류 영농안내

■ 당을 올리려면

○ 2차 낙과후 해피한그린 25말+글루칼(포도당 칼슘)50말→일주일 간격 2회엽면시비(농약 혼용가능)

○ 색이 변할때(노지감귤인 경우 10월초)해피한 그린 25말+글루칼 25말 일주일 간격 2~3회 엽면시비

■ 양양막(감귤속 내피)을 부드럽게 하려면

○ 1차, 2차 낙과후 하이휴믹(천연가리)2번 관주 (3300㎡ 당 2번 관주시 4만원 소요)

■ 부피과 방지 하려면(만감류인 경우)

○ 9월부터 송풍기 가동해 아침 이슬이 맺지 않도록 할것

○ 7월부터 한라봉인 경우 15일에 한번 글루칼 50~100말 엽면시비

다른 만감류는 30일에 한번 엽면시비

■ 산이 높고 당이 떨어졌을때(하우스 감귤포함 수확 20일전)

○ 50말에 해피한 그린 3병+글루칼 2포 3~4일간격 3회 엽면시비

(주)포트라 제주시사

곰팡이감귤유통상사

제주시시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